

“법정 스님처럼 친절한 글로 읽혀지길 바라며”

송광사 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행복한 기원’ 펴내 삶에 지친 이들 위로하며 체득한 기원의 힘 글로 풀어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법정 스님을 떠올립니다. 법정 스님의 글은 참으로 친절합니다. 스님의 글은 불교를 알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을 일깨워줬다.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주지인 보경 스님



은 자신도 “법정 스님을 닮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보경 스님은 법정 스님처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는 이야기를 담은 <행복한 기원>을 출간했다.

스님은 책 서문을 통해서도 “나의 말과 글의 산실은 공교롭게도 법정 스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다. 스님은 송광사로 출가하기 전부터 법정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80년 광주 민주화의 봄’ 시절에 법정 스님의 광주 강연회를 잊지 못합니다. ‘원망을 버려라. 원망으로써 원망은 깊어지지 않는다. 원망을 버리는 길만이 그 원망을 깊은 길이요, 영원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나에겐 이 말은 충격적이었고, 그 말은 곧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번 출간에 앞서서도 법정 스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떠올렸으며, 자신의 글쓰기의 자양분이 법정 스님이었다는 걸 입적하신 후에야 깨달아 아쉽다”고 밝혔다.

보경 스님은 도심 포교당에서 8년 동안 주지생활을 해왔다. 스님은 주지로 살면서 삶에 지치고, 시련에 아파하고,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왔다. 때론 그들의 투정을 받아주는 부모가 되기도 했고, 갈 길을 알려주는 선생이기도 했으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 치료사가 되기도 했다.

스님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일은 좋은 길 가기를 ‘기원’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주지 생활을 통해 얻은 과정들을 지난 여름에 기록한 ‘주지일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자는 ‘나는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

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감추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스님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일반 불자나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도움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그 고민을 자신의 글로 풀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 노력했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일생 1만권 독서의 꿈’을 세워 실천해왔다. 스님은 “지금까지 한 반은 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의 1만권 독서 읽기는 스님의 글쓰기에 상상력과 유연함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일까. 스님은 전작 <사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이야기 숲을 거닐다>보다 이번 작품에서 훨씬 더 탄탄하고 자유로운 문장력을 구사했다.

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쉬운 경전 해설과 대중적인 글쓰기를 계속 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풍부한 이야기가 앞으로 불교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세상에는 ‘선(禪)’과 ‘속(俗)’이 있다고 생각한다. 속은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선은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며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하려면 초월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번뇌에 꼬달리기 마련”이라고 당부했다.

보경 스님은 송광사의 총무·재무국장을 지내고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장과 교육국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주지, 보조사상연구원 상무이사, (사)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아 대중 포교에 힘쓰고 있다.

행복한 기원 | 보경 지음 | 조화로움살 | 1만 3000원 | 이은정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①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킬박사의 고통은 ‘어리석음’ 이 원인

젊은 청춘들에게 2월의 가장 큰 행사는 발렌타인데이이다. 솔로부대도 발렌타인데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뮤지컬을 예매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한자리에 모였다.

학식이 높고, 자비심이 많은 지킬박사는 인간의 선·악을 약품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발명한 약으로 스스로를 실험한 결과, 지킬 박사는 자신과 정반대의 인격체인 흥포한 하이드로 변신한다. 사악한 하이드의 힘이 너무 강해져 통제할 수 없자 지킬박사는 결국 자살하며 모든 것을 유서로 고백한다는 내용이다.

이중인격을 소재로 한 지킬앤하이드는 인간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선하고 예의바른 지킬 박사와 살인마 하이드가 하나의 육체에서 두 개

몸째로 분노[癡]이다. 분노는 경미한 짜증에서부터 타오르는 분개, 격노 등을 포함한다.

셋째로 어리석음[癡]이다. 어리석음은 정신적으로 삐뚤어진 성향이나 우둔하고 흐릿한 정신 상태 또는 도덕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탐·진·치 삼독은 서로 얽혀있다. 탐욕과 분노는 어리석음에 근거하며, 분노의 원인은 탐욕이다.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 악의 근원이며,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 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지킬박사가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 속에 숨겨진 악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악물로써 왜곡해 결국 두 개의 인격으로 분리해 악을 드러냈다.



의 인격체로 대립·갈등하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1인 2역으로 소화해낸 주연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킬박사는 양분된 내면세계 때문에 고통 받고 괴로워한다.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이런 양면성을 조금씩 지니고 있다. 우리는 가끔씩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면성도 지니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면 악행의 원인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

불교에서는 악한 행동의 원인을 3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로 탐욕[貪]이다. 탐욕은 가벼운 동경에서부터 무성한 갈망, 금전욕, 명성추구, 관념에 대한 독단적인 집착에 걸친 상태들을 포함한다.

불교에서는 악한 행동의 원인 이외에 해결책도 제시한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1인 2역으로 소화해낸 주연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킬박사는 양분된 내면세계 때문에 고통 받고 괴로워한다.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이런 양면성을 조금씩 지니고 있다. 우리는 가끔씩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면성도 지니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면 악행의 원인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500회째 공연을 돌리며 한국뮤지컬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화려한 흥행기록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중적 갈등에 고통 받고 있다는 증거일까? 온갖 욕망으로 번뇌 속에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이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내 안의 하이드에게 이별을 고하자.

문화소식

#이울배반展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에서 추천작가 이유의 ‘이울배반’ 사진전을 연다. 작가는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용산참사,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 태안기름유출사건 등을 작품으로 연출했다. 사건의 상호작용의 관계와 대립, 또 그 사이의 욕망과 욕망의 불충분 등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다. 전시는 2월 27일까지 연다. (02)732-0732

#능인 스님 6집 앨범 발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타이틀곡인 ‘사랑해 영원히 너를’은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발라드풍의 곡으로 불자 외에도 일반인들의 큰 사랑이 기대된다.

행복사라는 이름으로 음성 공양을 펼치고 있는 능인 스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기획한 6집 앨범 ‘심향-마음의 향기’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찬불가는 물론이며, 디스코, 트로트, 민요, 발라드 등

#성파 스님 산수화展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이 지난해 ‘천연염색전’에 이어, 태평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3월 1일까지 산수화전을 연다. 스님은 1986년부터 불교문화와 전통공예를 접목시킨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사경, 서예, 천연염색, 도자기, 옷질공예 등의 작품을 꾸준히 해 온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담한 붓질과 속도감이 느껴지는 산수와 작품들을 선보인다. (02)724-6322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편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